

철강업계, 국내외 잇단 악재에 ‘흔들’… 원가절감 등 대책 마련

철강사, 전년비 2분기 실적 부진
실물경기 악화에 수요 위축 야기
中 저가물량 공세에 韓 가격 하락
1분기 비례선 매출·영업익 올라
하반기, 점진적 반등 기대 목소리
수익성 방어·글로벌 마케팅 박차

국내 철강업계가 나란히 2분기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철강사들은 이를 타개하고자 원가 절감, 생산량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5100억원, 영업이익 75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 영업이익은 43.3% 감소했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29% 늘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414억원, 영업이익 98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경기침체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철강공장의 이미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 78.9%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5.6%,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

실적악화의 요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고금리·고물가 등 실물경기 악화가 수요 위축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저가 물량이 국내

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더욱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미국 대선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강사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 강화 정책이 국내 철강업계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전분기 대비 반등한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 중국 정부의 탄소저감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철강 생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철강 수급이 개선되고 수출 가격이 상승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글로벌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하반기 저점 확인 후 점진적으로 회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 산업인 자동차, 특히 선박의 경우 국내 조선사가 현재 4년 이상 일감을 보유하고 있어 견조하다”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좋아질 것”이라 밝혔다.

철강사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포스코는 경제적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매진 중이다.

현대제철은 탄소저감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신강종 개발 등 자동차 소재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마케팅을 확대해 글로벌 차강판 판매비중을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U+ “데이터 강점 살려 AI 사업화 추진” 2분기 매출 8641억… 전년 동기비 15% ↓

황현식 사장, AI 석학 만나 협력 논의
익시젠, B2C 등 디지털전환 전략 설명

LG유플러스는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인공지능 세계 4대 석학 중 한 명인 앤드류 응(Andrew Ng) 스탠퍼드대 교수와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한 앤드류 응 교수는 황현식 사장과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팅에는 황 사장 외에도 이상엽 CTO(전무), 전병기 AX기술그룹장(전무), 등 기술 및 전략 관련 임원도 함께 참석했다.

앤드류 응 교수는 구글리서치의 사내 딥러닝 팀인 ‘구글 브레인’을 설립하고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수석과학자 겸 부사장으로 근무한 AI 전문가다. 특히 딥러닝 계에서 거둔 성



지난 29일 오후 LG유플러스에서 만난 황현식 사장(왼쪽)과 앤드류 응 교수의 모습. /LGU+

과를 기반으로 세계 4대 AI 석학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응 교수에게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인 ‘익시젠’을 활용해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B2C)와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B2B), 네트워크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발굴에 집중

해 익시젠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연내 8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어 응 교수는 글로벌 AI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자동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응 교수는 “이번 미팅이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전문성이나 시장 내 사업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AI를 활용한 사업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지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영업손실 546억 집계

에코프로의 2분기 매출액이 전방시장 둔화로 인해 감소했다.

에코프로는 2024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5% 감소한 86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분기 영업손실은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핵심 가족사인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매출 8095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실현했다. 매출액의 경우 전기 대비 1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재고평가충당금환입 등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분기 매출은 667억원, 영업손실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기 대비 16% 감소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기 대비 줄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털 솔루션 기

업 에코프로에이치엔의 2분기 매출은 468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9%, 영업이익은 51% 감소했다.

전방 수요 둔화로 제품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양극재 판매가격(평가) 하락폭이 축소되며 3분기에는 판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양극재 판가 하락률은 전기 대비 13% 수준이었지만 3분기에는 2%대에서 하락률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코프로는 캐즘 이후의 이차전지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양산 예정인 전구체 공장(CPM3, 4공장) 등 국내 설비 증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외부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을 통해 배터리 소재 생태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키오스크’ 점령한 식당가… 외식산업 고용 감소 유발

고용정보원, 디지털 전환 일자리 변화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음식점업에서는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음식점 605곳에선 도입 후 판

매·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다. 음식점 판매·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기 때문에 약 11.5%가 감소한 셈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시간 증가했다. 고용을 줄이는 대신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용직 고용은 약 0.09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0.159명 줄었다. 서빙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5.2% 감소해, 한 달에

약 6만8600원의 인건비를 덜 받았다.

한국고용원은 판매·서빙 직종의 일부 근로자를 줄이고 이들을 키오스크로 대체했지만, 남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일부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조리사의 고용은 늘었으나 판매·서빙 근로자의 고용은 0.14명(약 7.6%) 줄었다.

/김대환 기자 kdh@

SK C&C, 글로벌 공급망 ESG 실버 인증

‘클릭 ESG’ 활용… 상위 15% 이내 들어

SK C&C가 대원씨엔씨가 SK C&C의 ‘클릭 ESG’를 활용해 ‘에코바디스 글로벌 공급망 ESG 실버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기관으로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에코바디스 등급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로 나뉘며, 실버 등급은 상위 15% 이내 기업에게 주어진다.

대원씨엔씨는 클릭 ESG를 통해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 플랫폼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업별 ESG 핵심 지표 평가와 동종 업계 비교, 세부 개선 영역 제시 등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이뤄냈다. /김서현 기자 seoh@